

# 2005년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를 통해 예측한 인테리어 디자인 경향

글 | 김민재 기술개발부 사원 02-3433-7707 이메일 | missdorothy@ssyenc.com

지난 2005년1월 17일부터 1월 23일, 7일간 독일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가 있었다. 매년 세계적으로 가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데 이태리의 밀라노 가구쇼와 독일 켈른 가구쇼는 매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가구 박람회이다.

지난 2005년1월 17일부터 1월 23일, 7일간 독일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가 있었다. 매년 세계적으로 가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데 이태리의 밀라노 가구쇼와 독일 켈른 가구쇼는 매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가구 박람회이다(밀라노는 짝수 해, 켈른은 홀수 해). 두 전시회는 매해 새로운 가구 경향(trend)을 제시하면서 가구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문화, 첨단 디자인 및 패션을 주도하는 전문 전시회로 국내 디자인계에 있어서 상징적이면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람회이다. 독일 가구박람회의 정식명칭은 IMM<sup>①</sup> (International Mobile Messe/international furniture fair)이며 총 14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생활가구, 부엌가구, 조명, 패브릭(fabric), 소파 등 인테리어 전반에 걸친 가구를 전시한다.

■ 사진 1. 켈른 대성당을 배경으로 야외에 놓여있는 가구 박람회를 단순한 산업적 행사가 아닌 미학적 축제로 보이게 한다.



〈사진 1〉 올해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136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약 16만 명이 다녀갔다. 이는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가 단순한 가구 박람회 성격을 넘어, 실

① IMM(켈른 가구전시회) - 매년 1,500여개사에서 출품하고 약 120,000여명이 관람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가구산업 전문전으로 주거공간문화, 첨단 디자인 및 패션을 주도하는 전문전시회(www.koelnmesse.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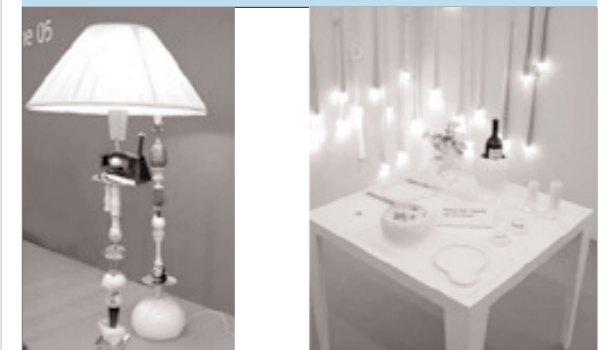
내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적 권위있는 행사이고 국내의 이벤트 수준을 넘어 전통적 스타일에서 최신 경향, 나아가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전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디자인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 사진 2. 아이디어 신발장 이멜다(Imelda)



〈사진 2〉 보통 신발장은 신발을 안보이게 감추려고 하는데 비해, 신발들을 마치 오브제처럼 정리하도록 해주는 수납장이다. 앞모습보다는 옆에서 본 모습이 신발의 형태적 특징을 더 잘 보여주는데,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태들을 연결해 부채살무늬처럼 만들어져 장식성을 더해준다. 구두수집으로 유명한 필리핀 전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의 이름을 붙인 것도 재미있다.

■ 사진 3. 케밥 램프(Kebab Lamp)  
■ 사진 4. 테이블 시스템(Lava)



〈사진 3〉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모아, 줄줄이 꿰어 만든 전등으로, 고기를 이처럼 꽂아 굽는 터키 음식인 케밥이라는 재미난 이름이 붙어있다. 〈사진 4〉 모듈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테이블로 판 모듈들이 여러 형태의 용기들을 겸한다. 특

히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뭔가 자꾸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가구로 안성맞춤이다.

박람회도 해를 더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7년쯤 전까지는 정말 가구 박람회가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수많은 세계적인 업체에서 각자 자기 브랜드만의 부스(booth)를 디자인해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각각의 규모도 엄청났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가 침체한지 오래고 되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수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피가 성행되어 박람회는 점점 그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전시회가 열릴 때는 이탈리아 업체의 참가율이 점차 떨어지고 이탈리아에서 열릴 때는 독일 업체의 참가율이 점차 떨어져 몇 년 전부터 굵직한 유명 브랜드들은 아예 박람회장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 쇼룸에서 따로 전시를 하는 추세라고 한다. 올해는 홀수 해이므로 독일 쾰른에서 가구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역시나 booth 내부도 수수해 졌고, 이탈리아 업체는 거의 참가

■ 사진 5. 오리엔탈 느낌의 침실 디스플레이  
■ 사진 6. 나무 무늬를 강조한 의자 디자인



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규모도 많이 축소되어 보인다.

지난2004년의 디자인 경향은 젠<sup>2)</sup>, 오리엔탈리즘<sup>3)</sup>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서로 믹스하는 Mix & Match<sup>4)</sup>로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Well-being 개념의 대두로 환경친화적인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내추럴한 스타일

2) ZEN(젠) : '선(禪)'의 일본식 발음. 선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동양적인 여백의 미를 공간에 도입하여 단아하고 담백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함. 젠 스타일이라고 하면 직선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동양적인 느낌의 높이가 낮은 장과 탁자가 매치되고 월넛 칼라와 짙은 브라운이 주로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등과 같이 쓰임. 자연친화적 경향이 짙어 대나무, 조약돌, 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이 많이 쓰임.  
3)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 동방적 취미,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함. 특히 낭만주의 예술에서는 고딕취미와 함께 오리엔탈리즘이 주제의 선택, 취향의 기초가 됨.  
4) Mix & Match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와 아이템을 섞어 표현하거나 동서양을 융합시키는 스타일. 현재 최신 디자인 트렌드로, 의류, 가구, 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음.  
5)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05 Heimtextil(하임텍스틸, 2005. 01.12~2005.01.15) 디자인 박람회에서 Mix & Match를 주제로 집이라는 공간에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

이 큰 강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 주택 인테리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작년 한해 동안 젠, 오리엔탈리즘의 가구나 소품이 유행했고 가구 마감에 있어서도 다양한 패턴의 나무무늬가 적용되었다.

2005년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를 통해 본 디자인 경향은 전체적으로 작년의 영향을 받은 Mix & Match 의 강세를 들 수 있다. 한 가지 스타일 군을 위한 모임의 형태라기 보다 한가지 스타일을 재창조해 내기 위한 여러 시대에 걸친 요소들의 수집 상 같은 형태를 띤다. 작년에 이은 Mix & Match는 올해도 지속적인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에서도 여전히 소재간의 믹스가 많이 보인다. 오리엔탈 스타일의 인기도 점차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두 군데 동양권의 풍으로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양문화권의 요소들이 다른 문화권의 스타일과 믹스되어 표현되었다.

■ 시나리오 1. Classical and stylish glamorous accessories for a sophisticated ambience. 극도로 세련된 분위기를 위한 클래식하고 스타일리쉬한 매력적인 부속품



■ 시나리오 2. Fascinating and smart fashionable highlights for young romance. 젊은 로맨스를 위한 매력적이고 명석하며 패셔너블한 하이라이트



■ 시나리오 3. Cool and functional sporty accents for a laid-back interior. 구매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테리어를 위한 쿨하고 기능적인 스포티한 액센트



■ 시나리오 4. Noble and modern functional detail for a cool interior. 근사하나 인테리어를 위한 고상하고 모던한 형태의 디테일



다음 4개의 사진은 2005년 Mix & Match 컨셉을 보여주는 4개의 시나리오이다.<sup>5)</sup>

소재나 색상면에서의 특징은 다양한 소재와 과감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블랙 앤 화이트(Black & White)의 조화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러 해에 걸쳐 디자인 경향이 빛과 어둠, 대비와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이러한 결과로 블랙 앤 화이트는 현대적이고 관능적이며, 상반된 매력을 갖고 있는 디자인 요소로 디자이너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블랙에 그로스(gloss) 마감을 더해 가구에 적용되거나 블랙 앤 화이트에 가볍고 부드러운 톤의 파스텔이 얻어져 세련됨을 더하기도 한다.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의 소재도 제안되었다. 이러

한 소재는 기존에 떠올리는 하이 테크놀로지(hi-technology)하면 떠오르는 차가운 느낌의 소재라기 보다는 사용이 편리하고 기능적이며 따뜻하고 유연하고 유머러스한 소재들이다. 보는 것만으로 미각과 촉감을 자극하는 독특한 느낌의 텍스처(texture)이거나 그로스한 느낌의 소재들이다.

매년 국제 가구 박람회를 참관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쾰른과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보여줬던 화이트 오크 색상과 하이그로스, 여기서 대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가죽 등과 같은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충격들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느낌은 많이 정돈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많이 선보인 색상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 이외에 다양한 톤의 그레이와 레드들을 들 수 있으며 레드는 작년보다 깊이 있게 와인에 가까운 컬러로 글로스하게 표현되고 브라운은 나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필감을 가미한 단색으로 많이 선보였다. 또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고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갈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이를 반영하듯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구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보여졌다. 여기에 복고적 감성이 더해져서 부드럽고 소프트 하면서 크고 화려한 패턴의 나무 무늬나 깊고 강한 느낌의 오크나 월넛 무늬가 대거 등장했다.

■ 사진 7~11. 레드와 파스텔 계열의 하이그로시 가구 마감



또한 투명, 반투명의 유리 및 컬러 플라스틱 소재가 부각되면서 이를 통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났다. 목재의 경우 기존의 화이트 오크, 라이트 체리, 메이플 등을 중심으로 웬지나 월넛의 진한 나무 무늬를 액센트로 주던 것이 올해는 부드럽고 가벼운 톤의 내추럴한 패턴과 짙고 블랙에 가까운 짙은 컬러와 더 과감한 큰 패턴이 가미되어 선보였다. 여러 가지 패턴과 다양한 톤의 오크는 여전히 강세이고 새로운 수종으로 선보이는 패턴으로는 대나무를 들 수 있다.

■ 사진 12, 13. 블랙과 화이트, 블랙과 그레이 하이그로시 색상의 Contrast



하이그로시(hi-glossy)<sup>6</sup>로 도장된 단색타입 또는 무늬목에 도장, 유리뒷면의 도장(back paint glass), 또는 아크릴 소재 등 그로시한 소재도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자연

■ 사진 14. 가구도어에 이용되는 다양한 나무 무늬



친화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거친 느낌의 자연적 소재들이 많이 선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짙 느낌의 소재, 린넨, 송아지가죽, 악어가죽, 자개 등의 다양한 소재가 선보였다. 그리고 유리 가공 기술 특히, 면의 가공과 구조, 유리를 결합하는 UV접합기술의 발전으로 유리는 더 이상 보조마감재가 아닌 대표적인 소재로써 선보여지고 있다. 유리로만 이루어진 옷장, 프레임 없이 힌지(hinge)로만 지탱하는 가구 유리 문짝, 조명과 함께 감성적으로 표현된 가구 및 실내공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사진 15. 이음새 없이 하나의 나무패널로 만들어진 책꽂이  
■ 사진 16. 하드웨어가 사용되지 않은 수납가구  
■ 사진 17. 조명이 매입된 라운드형 주방 가구



그러나 국내 가구 시장의 실정은 나무에 대체되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유리나 칼라 플라스틱 등의 가공기술과 하드웨어의 개발이 기대만큼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시장을 통해 선보여진 대체 재료에 대한 다양성, 유리 및 스틸 가공기술의 발달이 매우 놀라웠으며 이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예년에 이어 가구 내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실내 분위기

<sup>6</sup> 하이 그로시 (HI-GLOSSY) : 고광택 도장방법. 여러 번의 도장과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상이 비치는 평활도를 높임.

는 물론, 조명기구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가구도 많이 볼 수 있다.

■ 사진 18. 조명이 이용되어 더욱 돋보이는 가구들



2005' 컬른 국제 가구 박람회 를 통해 본 2005년 인테리어의 세계적 경향은 예년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컬러나 소재면에서 좀더 과감하고, 독특한 스타일로의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말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몇 가지 대표적인 경향을 바탕으로 2005년 디자인 경향에 대해 유추해 보면, 형태나 기능면에서는 장식과 군더더기를 배제한 모던스타일을 바탕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보이는 느낌의 패턴이나 색상, 장식들이 선보이고 오리엔탈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개개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나타나고 기능성을 강조하는 간결한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이는 하드웨어 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와 실제 가구에 적극 적용되어 고급화되는 디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세계적 경향을 바탕으로 2005 국내 주택시장은 대중적이기 보다는 고급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natural-style을 기본으로 소형평형 주택에서는 라이트 오크와 같이 밝은 무늬목에 강한 그레이가 가미된 우드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하이글로시 도장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칼라가 유리소재

<sup>7</sup> 미니멀리즘 (minimalism) : 20세기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제작했던 회화나 조각을 가리키며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주의의 표명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 이들 작품의 공통된 조형적 특징은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으로 분석됨.

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 될 것이고 대형평형 주택에서는 월넛, 다크오크를 기본으로 다크그레이나 강한 블랙, 화이트 도장, 혹은 하이그로시 도장을 사용하여 contrast in harmony의 개성적인 디자인이 국내에서도 많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년의 흐름을 유지한 장식과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minimalism)<sup>7</sup> 공간에 칼라와 소재를 예민하게 조화시켜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는 변화된 Mix & Match스타일이 인테리어 마감 색상이나 주방가구, 일반가구에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